



예술에 있어 창조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視覺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 에렌즈워의 「예술의 숨은 질서」를 읽고 있는 李光美교수

지금 독서중

서양화가 李光美교수(45세·성신여대 서양화과)가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은 앤턴

에렌즈워(Anton Ehrenzweig)의 「예술의 숨은 질서」(The Hidden Order of Art, 1976년, 캘리포니아대 출판부 판). 副題가 「예술적 상상력의 심리학에 관한 연구」인 것처럼 예술심리학이라는 흥미로운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에렌즈워(1908~1960)은 영국출생으로, 런던대와 버클리대에 재직했으며 저술가로서 정곡을 찌르는 좋은 글을 많이 쓴 학자라고 李光美교수는 소개한다.

『왜 자코메티는 인간을 바짝 마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예술심리학이란 美的

구성원리·제작행동·감상반응 등 예술에 관한 여러문제를 연구, 해명하려는 응용심리학의 하나. 학문적으로 자리잡은지 얼마되지 않은 비교적 생소한 분야로,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대학의 상급반 강좌로 개설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몇개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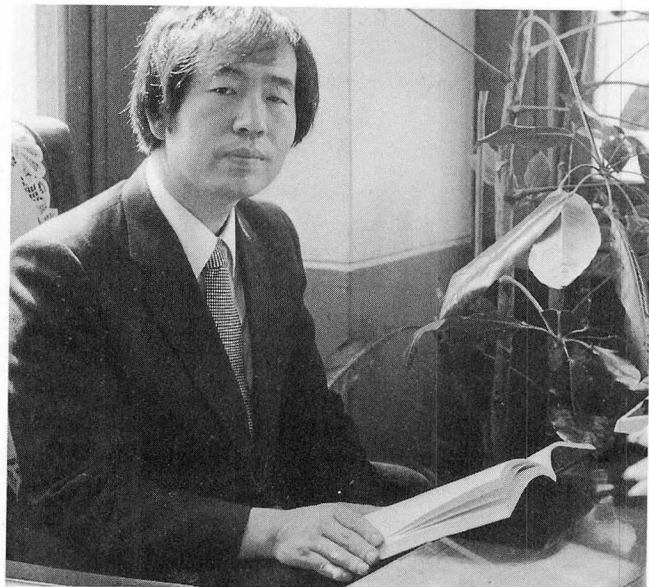
『저자는 「예술의 숨은 질서」에서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론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특히 미술에 있어 테크닉을 배제하는 한편, 창조성·정신성 등을 강조하고 있지요. 테크닉 위주의 미술교육은 창의성을 저해할 뿐이며,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시각, 창의적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작품의 동기유발, 심리적으로 작품에 임하는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갖고 있는 정신적 독창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코메티의 작품을 예로 든다면 20세기에 있어 인간성의 상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작가의 심리상태로부터 분석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심리학에 관해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저서라면 루돌프 아른하임의 「예술심리학」(金在恩역, 1984년 이대출판부 판)이 있다. 그러나 아른하임이 視知覺 전공인데 반해 에렌즈워의 이 책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있으면서도 상당히 미학적이며, 르네상스 전후시대에서부터 20세기 중반 이후까지의 작품들을 폭 넓게 분석하고 있다고 李교수는 말한다. 실제의 작품들을 다룸으로써 그 이론의 전개를 더욱 실감있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예술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각자가 지닌 창조성을 개발시키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저자의 시각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지요. 실지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삶을 바라보는 자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 오애리 기자



민족자본의 육성을 주장하고 경제 각부문의 불균형 시정을 촉구하는 全哲煥의 논지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였다고

## 全哲煥 著 「社會正義와 경제의 논리」를 읽고 있는 변호사 朴元淳씨

지금 독서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인 朴元淳씨(34)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충남대 全哲煥교수가 쓴

「社會正義와 經濟의 論理」(80년 한길사 판) 『이 책은 분배 문제, 政經유착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병폐를 진단하는 한편, 正義란 무엇인가를 따져 묻는 경제철학론, 資源武器化로 대변되는 제3세계 민족주의를 개관한 논문들을 싣고 있어요. 전에 한번 통독했던 글이지만 근래 우리 사회가 급격한 전환기로 접어든 것 같아 제 視角을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읽고 있지요』

차변호사가 요즘 이 책을 가까이하게 된 간접적인 계기는 학생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일. 법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접할 때마다 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가름한다는 것이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 토로한다.

『학생들이라 해서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그들 주장 가운데는 관념적으로만 앞서간다고나 할까, 저로서 동의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즉 자립경제와 민주화문제는 학생들만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적인 요청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반문한다. 이 점에서 민족자본의 육성을 주장하고 獨寡占 체제와 경제각부문의 불균형의 시정을 촉구하는 全교수의 논지가 합리적이면서도 지극히 온건한 대안으로 보였다는 얘기가.

『全교수는 경제자립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 數値의 표면적인 균형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나라 민족자본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죠』

차변호사는 제작년 한때 변호사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겠다는 일념에서 한동안 정신없이 역사서적들을 사모았는데 轉業을 포기한 후 그 책들을 몽땅 후배들에게 넘겨 주었다고 한다. 얼핏 기억나는 책만도 「朝鮮總督府官報」 「大韓每日新報」, 일본學會誌 「土地制度史學」, 조선조 때의 刑事기록인 「推案及鞫案」 등 적지 않은 분량이었던 게 부인 강만희씨의 귀뜸이다.

『흔히들 일단 考試에 합격하면 그걸로 공부가 끝난 것이라 착각하는 통념이 있는데 사실은 공부의 시작에 불과해요. 또 사회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결여된 채 법률을 다루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도 이제껏 변론땀 쏘는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는 인스턴트 독서를 못벗어났다고 탄식한다.

『저도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요. 특히 判例가 없어서 실무적인 애로가 많지요』 지적소유권학회, 저작권법학회에 두루 관여해 왔고 작년 方熙宣씨와 함께 「著作權法」(法經出版社)이란 책을 쓰기도 했던 그는 법조계에도 저작권 전문가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은교 기자